SECTOR
UPDATE

2025. 6. 30.

산업재팀

한영수 팀장
han.youngsoo@samsung.com

정소연 Research Associate
soyeon.chung@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조선/기계 주간 코멘트

한국 중견 조선소 부활의 의미와 영향

- 선가: 신조선가 지수는 직전 주와 동일한 187에서 유지. 소수점 단위로는 미세 상승. 중고선가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하여 181을 기록.
- 해운 지표: Clarksea(선박 수익 지표) 지수는 직전 주 대비 6% 하락. 중동 사태로 급등했던 해운지표들이 조정을 보였기 때문.
- 주간 코멘트 주제: 중견 조선사인 대한조선이 상장을 추진. 국내 중견 조선사들의 부활이 전체 업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점검.

▶ 주가 Performance

(%)	1W	3M	YTD
HD 한국조선해양	-3.1	81.1	59.6
HD 현대중공업	-4.7	50.7	46.8
삼성중공업	-4.2	16.8	43.0
한화오션	-10.4	18.5	112.6
HD 현대미포	7.6	95.2	48.4
HD 현대일렉트릭	3.7	59.8	27.6
HD 현대건설기계	0.3	13.4	30.5
HD 현대	-1.6	70.9	60.1
HD 현대인프라코어	-1.1	43.9	82.1
두산밥캣	12.6	15.1	40.3
한국항공우주	-3.9	22.1	66.1
LIG 넥스원	-10.8	123.5	146.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1	43.5	176.8
효성중공업	3.6	99.1	118.1
LS 일렉트릭	3.4	58.8	77.2

▶ Valuation summary

(배, %)	P/B	P/E	ROE
HD 한국조선해양	2.0	11.8	17.9
HD 현대중공업	5.6	28.1	21.6
삼성중공업	3.4	29.0	12.2
한화오션	4.4	34.2	13.7
HD 현대미포	3.6	32.1	11.6
HD 현대일렉트릭	9.0	26.7	38.0
HD 현대건설기계	0.8	12.2	6.3
HD 현대	1.1	10.1	11.0
HD 현대인프라코어	1.2	14.4	8.5
두산밥캣	0.8	10.6	7.5
한국항공우주	4.7	36.5	13.6
LIG 넥스원	8.3	40.8	22.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7	32.4	19.2
효성중공업	3.6	24.5	15.8
LS 일렉트릭	4.2	28.2	15.5

참고: 2025년 기준
자료: 삼성증권 추정

WHAT'S THE STORY?

한국 중견 조선소 부활의 의미와 영향

국내 중견 조선소 중 하나인 대한조선이 개선된 실적을 기반으로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 회사의 사업은 원유 운반선과, 셔틀탱커, 그리고 중형 컨테이너로 구성. 이중에서도 주력은 원유 운반선과 셔틀탱커. 유조선 부문 매출은 지난해 전사 매출의 78%, 올해 1분기의 99%를 설명. 최근 이익률은 오히려 대형 조선사들 대비 우수. 이는 단순한 선종 구성과 중국산 후판의 사용 때문. 대한조선 외에도 국내 중견 조선사들의 펀더멘털은 개선 추세. 대형 5개 조선사들(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을 제외한 국내 중견 조선사들의 선박 건조량은 지난 3년간 CAGR 39%의 증가율을 기록. 실적 역시 대부분 흑자 전환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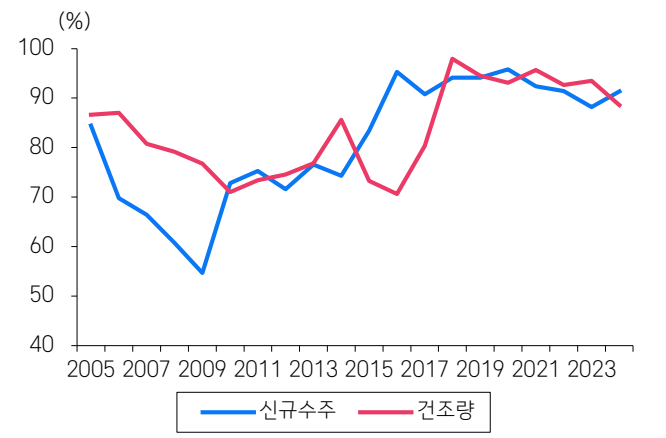
국내 중견사들의 회복이 기존 대형 조선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우선, 국내 중견사들의 주력 선종이 대형사와 겹친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 대형사들의 주력은 가스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반면 중견 조선사들은 주로 유조선과 중대형 컨테이너선. 또한 한국 중견 업체들도 이미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 심화 가능성은 제한적. 상장 신고서를 제출한 대한조선도 2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 중견 업체들의 부활은 조선업 전반의 업황 개선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

오히려 중견사들의 회복은 기존 대형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을 가져올 것. 이들의 회복이 한국 전체의 점유율 상승을 유도할 것이기 때문. 국내 대형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과거 초호황기(2006-2008) 이후 현재까지 의외로 꾸준하게 유지. 한국 전체의 점유율 하락은 결국 2015년부터 시작된 중견 조선사들의 몰락 때문. 참고로 2007년 말 전 세계 20대 조선사 중 한국 업체는 9곳. 반면 현재는 대형 5개사가 전부. 직전 호황기에는 대형 5사 외에도 HJ중공업(구 한진중공업), 성동조선, SLS, STX가 20대 조선소에 포함. 한국 중견 조선사들의 시장 복귀는 한국 전체의 점유율 수치 회복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일부 투자자들은 한국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한국 대형 조선사들의 수주 경쟁력 약화 때문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

(산업 뉴스는 다음 페이지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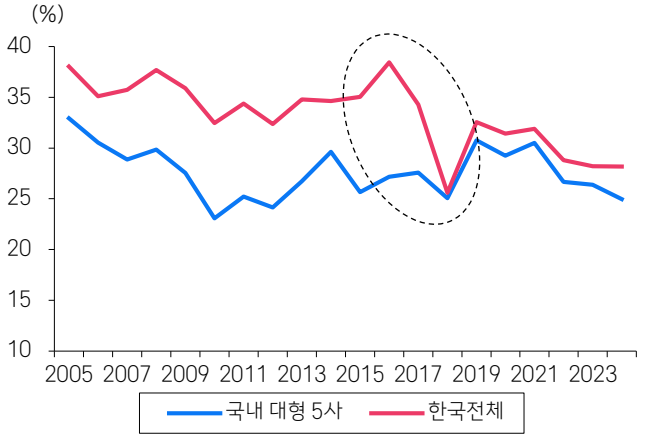
삼성증권

한국 조선 산업에서 대형 5개사가 차지하는 비중



참고: GT 기준
자료: Clarksons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 한국 전체 vs 대형 5사



참고: GT 기준
자료: Clarksons

산업 뉴스

HD현대삼호, LNG선 수주: HD현대삼호가 LNG선 4척을 약 10억 달러에 수주. 척당 선가는 257백만 달러로 현재 시장 가격을 상회. 해당선박은 2028년 8월까지 인도될 예정. 해당 수주를 포함하여 HD현대삼호는 올해 32억 달러의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 이는 올해 목표의 70%, 지난해 연간 수주의 44%에 해당하는 양.

HD현대, 부유식 SMR 설계 승인: 미국 선급협회(ABS)가 HD현대 그룹이 설계한 부유식 SMR모듈화에 대한 개념 승인(AIP)을 부여. 개념 승인은 특정 설계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기술적 결함을 확인하는 절차. 참고로, HD그룹은 미국 SMR 기업인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와 동시에, 원자로 용기 공급 계약을 수주하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속.

나토 국방비 증액 결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하기로 공식 합의.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공동 성명에서 전력 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 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 산업 기반 강화 등에 제출하기로 결정. 이는 기존 2.5%에서 2배 수준인 만큼, 유럽 국가들의 무기 투자 확대가 예상.

한화오션, VLCC 수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그리스 선사 Tsakos와 초대형 유조선(이하 VLCC) 3척에 대한 건조 의향서를 체결. 이 외에도 해당 언론은 한화오션이 Capital maritime과도 VLCC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 최근 유조선 부문은 호의적인 선박 수급과 운임 회복으로 발주가 증가 추세.

HMM, 컨테이너선 발주: 언론에서는 영국 조디악 마리타임과 우리나라 장금상선이 HMM에 장기 용선할 13,000TEU급 컨테이너선 발주를 위해 HD현대중공업과 논의 중이라고 보도. 기사에 따르면 발주 물량은 최소 6척에서 최대 10척. 해당 선박은 2027-2028년 중 인도될 예정.

한화시스템, 해운 사업 투자: 한화시스템은 25일 미국 자회사(HS USA HOLDINGS)의 주식 6만 2,000주를 846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 출자된 자금은 다시 또다른 미국 자회사인 한화해운 지분 투자에 사용될 예정. 참고로 한화해운은 작년 한화오션이 미국 자회사를 통해 설립한 해운사.

KAI, KF-21 잔여 물량 공급 계약 체결: 방위사업청은 26일 한국항공우주 (KAI)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20대 추가 양산 계약을 체결.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조 3,970억 원에 해당. 이번 추가 공급 계약을 통해 작년에 양산 계약을 맺은 20대 이후 최초 양산 계획 40대에 대한 계약이 완료됨. 참고로 해당 기체에 탑재될 F414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량 공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발행가 확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68.4만원으로 확정. 발행가액 기준, 증자 규모는 총 2.9조원. 기존 그룹 관계사로의 제3자 배정 증자 1.3조를 포함한 총 자금조달 규모는 4.2조원. 최근 주가 상승으로 오히려 증자 발표 시점 대비 자금 조달 규모가 확대.

조선업 주요 지표

	현재	지난주 대비		2024년 말 대비	
	6월 27일	6월 20일	증감률 (%)	2024년 말	증감률 (%)
신조선가 (백만달러)					
전체 (지수)	187.1	186.9	0.1	189.2	-1.1
벌크선 (Capesize)	73.5	73.5	0.0	76.0	-3.3
유조선 (VLCC)	126.0	126.0	0.0	129.0	-2.3
유조선 (51,000DWT PC선)	48.5	48.5	0.0	52.0	-6.7
컨테이너선 (22,000TEU)	243.0	243.0	0.0	244.0	-0.4
컨테이너선 (13,000TEU)	151.0	151.0	0.0	153.0	-1.3
LNG선 (174,000m³)	255.0	255.0	0.0	260.0	-1.9
중고선가 (백만달러)*					
전체	181.0	179.0	1.1	176.0	2.9
벌크선 (Capesize)	63.0	63.0	0.0	62.0	1.6
유조선 (VLCC)	117.0	117.0	0.0	114.0	2.6
유조선 (51,000DWT PC선)	40.0	40.0	0.0	42.0	-4.8
일일용선료 (달러)**					
벌크선 (Capesize, Eco)	17,000	19,800	-14.1	18,500	-8.1
벌크선 (Capesize, Non-Eco)	16,000	18,800	-14.9	17,500	-8.6
유조선 (VLCC, Eco)	48,750	47,500	2.6	41,000	18.9
유조선 (VLCC, Non-Eco)	45,750	44,500	2.8	37,250	22.8
운임지수					
Clarksea 지수 (달러/일)	25,314	26,916	-6.0	21,965	15.2
BDI	1,521	1,689	-9.9	997	52.6
WS (사우디 기준)	60	83	-27.3	40	50.0
CCFI	1,369	1,342	2.0	1,515	-9.6
SCFI	1,862	1,870	-0.4	2,460	-24.3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 (달러/백만BTU)	3.2	3.1	4.5	3.4	-5.0
유가 (달러/배럴)***	65.5	74.9	-12.6	71.7	-8.6
MGO-HSFO 스프레드 (달러/톤)	224.5	220.5	1.8	205.5	9.2
VLSFO-HSFO 스프레드 (달러/톤)	86.8	75.3	15.3	87.0	-0.3

참고: 이번 주 전체 선가 지수 및 일부 선종의 신조선가 지수는 미공개
* 선령 5년 기준
** 1년 용선료 기준
*** 유가는 WTI spot, 천연가스는 Henry Hub가격
자료: Clarksons, Bloomberg, 삼성증권

주가 performance 및 valuation 요약

조선업: 주가 performance 및 valuation 요약

(%)	주가 performance				2025 valuation		
	1주일	1개월	3개월	YTD	P/B (배)	P/E (배)	ROE
HD한국조선해양*	-3.1	25.7	81.1	59.6	2.0	11.8	17.9
HD현대중공업*	-4.7	6.2	50.7	46.8	5.6	28.1	21.6
삼성중공업*	-4.2	3.1	16.8	43.0	3.4	29.0	12.2
한화오션*	-10.4	3.8	18.5	112.6	4.4	34.2	13.7
HD현대미포*	7.6	6.1	95.2	48.4	3.6	32.1	11.6
CSIC	3.0	3.9	5.1	-5.8	n/a	26.6	4.5
Yangzijiang	-1.3	6.7	-6.3	-25.8	1.6	6.7	25.3
CSSC Holdings	3.2	4.0	3.4	-11.5	2.5	18.8	13.4
Comec	7.1	10.0	14.1	12.4	2.0	37.0	5.5
Keppel	0.4	9.6	7.8	8.8	1.2	14.2	8.6
Sembcorp	-1.5	-1.5	-3.8	-1.9	1.0	18.3	5.8
Mitsubishi	5.6	11.6	38.0	63.9	5.0	45.4	11.4
Kawasaki	8.7	14.1	19.9	54.2	2.7	23.4	12.3

참고: * 당사 추정, 6월 27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추정

기계업: 주가 performance 및 valuation 요약

(%)	주가 performance				2025 valuation		
	1주일	1개월	3개월	YTD	P/B (배)	P/E (배)	ROE
HD현대일렉트릭*	3.7	28.5	59.8	27.6	9.0	26.7	38.0
HD현대건설기계*	0.3	11.3	13.4	30.5	0.8	12.2	6.3
HD현대*	-1.6	29.8	70.9	60.1	1.1	10.1	11.0
HD현대인프라코어*	-1.1	43.8	43.9	82.1	1.2	14.4	8.5
두산밥캣*	12.6	27.0	15.1	40.3	0.8	10.6	7.5
한국항공우주*	-3.9	8.6	22.1	66.1	4.7	36.5	13.6
LIG넥스원*	-10.8	26.7	123.5	146.3	8.3	40.8	22.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1	7.0	43.5	176.8	4.7	32.4	19.2
효성중공업*	3.6	44.3	99.1	118.1	3.6	24.5	15.8
LS일렉트릭*	3.4	14.7	58.8	77.2	4.2	28.2	15.5
Lockheed Martin	-2.5	-2.4	3.9	-5.6	4.1	26.6	16.4
Raytheon	-1.4	8.9	9.8	25.0	15.3	16.7	96.0
Siemens	6.4	2.4	3.1	18.1	3.0	24.3	12.8
Caterpillar	6.7	10.1	16.7	6.1	3.1	19.4	16.6
Komatsu	6.4	7.3	5.0	7.8	10.0	20.7	56.7
Kubota	2.6	2.2	-15.6	-12.5	1.4	11.0	12.6

참고: * 당사 추정, 6월 27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추정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5년 6월 27일 현재 삼성중공업와(과)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5년 6월 2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5년 6월 2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NCSI KS-SQI KCSI KCPI ccm 소비자중심 Best Korea Brands 2024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